

한전 에너지밸리 '공동 브랜드 GEP' 지정...질적성장 돌입



한전, 상생발전 토론회...기업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공동 물류센터 국책사업 추진...16개 대학과 파트너십

유치기업 500개를 돌파하며 '2단계 질적성장'에 들어간 나주 에너지밸리가 올해 본격적인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오는 4월에는 '에너지밸리 기업지원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며 한전과 지자체가 인증하는 '공동 브랜드 GEP(작은 사진)'가 첫 지정된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전력이 15일 광주에서 연 '에너지밸리 상생발전 토론회' 발표자료 '에너지밸리 질적성장을 위한 활성화 대책'에 담겼다.

한전은 지난 2015년 11개사를 시작으로 나주 혁신도시와 광주·전남 인근 산단을 에너지밸리로 묶어 차세대 전력산업에 특화된 기업·연구소를 유치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양적 성장을 위한 1단계 목표인 기업 500개사를 달성했다. 이달 현재 556개의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누적 투자금액 2조6771억원·고용 창출 1만2409명 등 경제효과를 봤다.

지난해부터는 많은 기업이 실제 투자실행을 할 수 있도록 '2단계 질적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유치기업 목표는 1000개사이다.

현재 53%(556개사 중 297개사)에 그친 투자실행률은 60%(1000개사 중 600개사)로 높인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전 상생발전처 에너지밸리추진실은 '공동 물류센터 구축' '산학협력 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밸리 질적성장을 위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오는 2030년까지 누적 1000개사를 유치하고 기업매출 2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4대 분야 12개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이들 과제에는 ▲에너지밸리 실무위원회 정기 개최 ▲탄소중립 특화분야 기업 연합(풀) 구축 ▲해외사업 진출지원 ▲기업 수요 반영 위한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전력기자재 발주 정확도 제고 등이 담겼다.

올해 눈에 띄는 질적성장 대책은 '에너지밸리 기업지원 통합플랫폼 구축'과 '우수제품 공동 브랜드화'가 있다.

우선 한전은 지난달부터 추진한 기업지원 통합플랫폼을 오는 4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이 플랫폼은 입주기업들의 매출액과 업력, 기술 수준에 따라 16개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입찰정보와 관련 전시회, 공동 연구과제, 시험·실증·인증설비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제품을 홍보하거나 기업 애로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우수 제품을 생산한 기업들에게는 한전과 광주·전남·나주시가 공동 인증하는 공동 브랜드 'GEP'(Guaranteed Energy



한국전력이 15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에너지밸리 상생발전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에너지밸리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전 제공>

Valley Product)가 주어진다. 유효기간은 3년(갱신 가능)으로, 매년 상반기 1회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첫 15개 기업이 뽑힐 예정이다.

공동 브랜드 사용권을 얻은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해외규격 인증비용을 지원받고, 수출금융 지원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다.

한전은 공동 브랜드 사업을 위한 운영기준을 확정하고 다음달 지자체와 협의회를 구성한 뒤 오는 4월께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이 추진된다. 한전은 앞으로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스마트 물류센터를 국책사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본보기로 삼은 공동 물류센터는 '경기 반월·시화 스마트 물류플랫폼'과 '인천 남동산단' '부산 녹산산단 조선키자재 공동 물류센터' 등이 있다.

물류 보관은 물론 부품 조달, 공동 배송, 재고 관리 등 생산·유통 통합 관리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또 생산시설이 없는 창업기업과 에너지밸리 제조 기업들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스마트 K-팩토리

공유시스템'을 활용해 수요-공급 협력 관계를 맺도록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필두로 16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에너지밸리 투자기업 290여개가 협력관계를 맺는 '산·학·연·관 협력 파트너십'이 구축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전과 나주혁신산단 입주 기업협회, 목포대·동신대, 광주테크노파크·전남테크노파크, 광주·전남 등 10여명이 참여해 투자 활성화와 인력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최대 3000만원 지원' 농어촌공사, 농촌재능나눔 단체 모집

18일까지 온라인 접수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12번째 진행하는 '농촌재능나눔'에 참여할 봉사단체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지역별 수요를 감안해 지역단체 7개와 일반단체 20개 처음으로 나눠 모집한다.

농어촌공사는 '농촌재능나눔 일반·지역단체 활동지원사업' 참가단체를 오는 18일까지 온라인 상으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촌에서 지식과 경험·기술 등 재능을 나누려는 단체라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다.

일반 부문에는 직능·사회봉사단체, 농업인 단체, 사회적기업, 법인·비영리단체 등이 해당한다. 지역단체 대상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지역별 청소년 지원센터 및 노인복지기관 등이 있다.

선정된 일반단체는 2000만원, 지역단체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해당 분야 재능나눔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분야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생활환경 및 마을환경개선, 주민교육 및 문화증진 등 4개 분야에서 50여 개 세부 활동으로 나뉜다.



지난해 농촌재능나눔 참가자가 농촌마을 고령자를 한방진료하는 모습. <농어촌공사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은 2011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8319개 마을 47만9913명의 농촌 주민이 혜택을 받았다.

매년 활동지원사업, 의료전문 기관원, 대학생

동아리 지원 및 대학생캠프 등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스마일재능뱅크(smilebank.kr)에서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농식품 마케팅대학 교육생 모집

3월2일까지 3개 부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3월2일까지 '2022년 상반기 농식품 마케팅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 마케팅대학은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농식품산업 분야 장기 전문 교육과정이다.

이번 모집 과정은 '농산물 CEO MBA(1년)', '농산물 마케팅 전문가(6개월)', '농식품 온라인 유통 경영인(6개월)' 3개 과정이다.

교육은 3월15일부터 7월7일(CEO MBA는 12월6일)까지 진행된다.

수강료는 '농산물 CEO MBA'의 경우 1인당 400만원(35명)이며, '농산물 마케팅 전문가'와 '농식품 온라인 유통 경영인' 과정은 1인당 190만원(과정별 35명)이다.

학계·관련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사 마케팅 전략 수립, 경영환경 트렌드, 온라인 상품화 전략,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ESG) 이해 및 사례

연구 등에 대해 강의한다. 워크숍 및 국내외 연수도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는 가상공간 메타버스와 생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 빅데이터 등의 실무능력 향상 교육을 확대한다. ESG경영에 대한 교과목도 확대 편성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핵심 가치를 전파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공사 사장상 등이 주어진다. 수료생들은 이후에도 농식품유통교육원으로부터 농식품유통 관련 최신 지식과 현장정보 등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전문 업체를 통한 주기적인 방역과 함께 교육원의 모든 방문자를 대상으로 열감지 카메라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 중급반</p>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h2>신축원룸매매(신축)</h2>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p> <p>●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p> <p>● 월수익 750만</p> <p>● 년수익 9000만</p> <p>●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p> <p>★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h1>010-6670-9800</h1>			